## 인사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회의 기록

### 1. 요구사항 분석 단계 회의 기록: '근태 관리 복잡성'을 중심으로

회의명: 인사시스템 요구사항 정의 회의

일시: 2025년 7월 10일 (수) 10:00 - 12:00

장소: [4층 중회의실]

참석자: 고객(인사팀장 김철수, 실무담당자 박미영), PM(이현아), PL(김민준), 설계자(최지훈), 개발자 대표(강은지)

**PM 이현아(아라):** 안녕하세요, 고객사 인사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의 PM 이현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스템이 갖춰야 할 핵심 기능을 정의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현재 인사 업무의 가장 큰 어려움과 시스템 도입 목표를 김철수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고객 김철수(민상):**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인사팀의 가장 큰 고충은 **복잡한 근태 관리**입니다. 현재 주 52시간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외근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수기나 엑셀로 관리하다 보니 오류가 잦고, 월말마다 데이터 취합 및 검증에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시스템 도입으로 이 복잡성을 해소하고, 근태 데이터를 자동으로 집계하여 급여와 연동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고객 박미영(다인):** 맞아요. 직원들도 본인의 근무 시간이나 휴가 현황을 투명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매번 인사팀에 문의해야 하는 불편함이 큽니다. 연차 계산도 수동이라 실수도 많고요. 이 부분이 꼭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설계자 최지훈(하준):** 말씀해주신 근태 관리의 복잡성에 공감합니다. 그럼 시스템의 1차 핵심 기능으로 **정확하고 유연한 근태 관리 모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이와 연동되는 직원 정보 관리 및 급여 연동 기능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시작하죠.

**PM 이현아(아라):** 좋은 방향입니다. 그럼 김철수 팀장님, 근태 관리 외에 1차적으로 꼭 필요한 핵심 기능이 더 있을까요?

**고객 김철수(민상):** 네, 직원들의 **기본 정보(인적사항, 경력, 학력)와 조직 정보(부서, 직책) 관리**는 근태와 연동되므로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데이터가 **급여 시스템으로 정확하게 연동**되어 급여 계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성과 관리나 교육 관리 같은 기능은 2차 개발로 미뤄도 괜찮습니다.

**개발자 강은지(앨리스):** 근태 관리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면, 다양한 근무 형태에 대한 정의와 출퇴근 기록 방식(예: 앱 기반, PC 로그인, 지문 인식 등), 그리고 휴가 신청/승인 프로세스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필요합니다.

**고객 박미영(다인):** 저희는 현재 PC 프로그램으로 출퇴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휴가는 팀장님 승인 후 인사팀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특히 **연장근무 신청 및 승인 프로세스**와 **법정 공휴일, 회사 창립 기념일 같은 특수 휴일 자동 반영** 기능도 중요합니다.

PM 이현아**(아라)**: 상세한 요구사항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회의 전에, 김철수 팀장님과 박미영 대리님께서는 현재 사용 중인 근태 관리 방식과 휴가/연장근무 신청 프로세스의 상세 문서 및 샘플 데이터를 저희 팀에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15일까지)

최지훈 설계자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근태 관리 모듈의 주요 흐름도(Use Case Diagram)와 사용자 시나리오 초안을 7월 17일까지 준비해 주십시오. 김민준 PL은 개발팀에 오늘 논의된 근태 관련 핵심 요구사항을 공유하고 기술적 검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5일까지)

**고객 김철수(민상):** 네, 알겠습니다. 근태 시스템 개선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최대한 빨리 자료를 준비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 2. 프로세스 설계 단계 회의 기록: '복잡한 근태 프로세스' 해결

회의명: 인사시스템 프로세스 설계 검토 회의

일시: 2025년 7월 22일 (화) 14:00 - 16:30

장소: [4층 중회의실]

참석자: 고객(인사팀장 김철수, 실무담당자 박미영), PM(이현아), PL(김민준), 설계자(최지훈), 개발자 대표(강은지)

**PM 이현아(아라):** 지난번 회의에서 근태 관리의 복잡성을 주요 개선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오늘은 최지훈 설계자가 이 요구사항을 반영한 프로세스 설계 초안을 가져왔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설계자 최지훈(하준):** 네, 화면 공유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설계한 것은 '유연근무제를 포함한 자동화된 출퇴근 및 근무 시간 계산 프로세스'입니다. 현재 PC 프로그램 연동 방식을 유지하고, 예외적으로 모바일 앱을 통한 기록도 가능하도록 흐름을 잡았습니다.

이어서 '휴가/연장근무 신청 및 승인 프로세스'입니다. 직원이 시스템에서 신청하면, 1차로 팀장 승인 후, 연차 소진의 경우 인사팀이 최종 승인하는 다단계 결재 흐름을 반영했습니다. 연차 계산 로직은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 월차 자동 생성, 법정 공휴일 및 회사 지정 휴일 자동 제외 기능을 포함합니다. 또한, 연장근무는 사전 신청 및 승인이 완료되어야만 근무 시간으로 인정되도록 프로세스를 설계했습니다.

**고객 박미영(다인):** (화면을 보며) 와, 연차 계산이 정말 자동화되네요! 그리고 복잡했던 연장근무 신청 흐름도 명확해졌습니다. 직원들이 훨씬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수기 계산 오류가 줄어들겠네요.

**고객 김철수(민상):** 프로세스 흐름 자체는 명확해 보입니다. 다만, 휴가 신청 시 연차를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나, 연장근무가 승인되지 않았는데 근무한 경우 등 **예외 상황에 대한 시스템의 처리 방식**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런 예외가 현재 업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설계자 최지훈(하준):** 좋은 지적입니다. 예외 상황에 대한 처리 방식은 프로세스 다이어그램에 추가하고, UI 설계 단계에서 사용자에게 명확한 피드백(경고 메시지 등)을 줄 수 있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연차 초과 신청 시에는 시스템이 자동 거부하거나, 경고 후 팀장에게 승인 요청이 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 강은지(앨리스):** 설계된 프로세스를 보니 구현 가능성은 높습니다. 특히 연차 계산 로직은 법규 변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 설정 부분을 관리자가 직접 변경할 수 있게 설계하면 좋습니다. 이 부분은 데이터 설계와 연관이 깊습니다.

**PL 김민준(준성):** 맞습니다. 계산 로직에 사용될 기준 데이터(예: 연차 발생 기준, 소멸 기준 등)는 별도의 코드성 테이블로 관리하여 유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PM 이현아(아라):** 좋습니다. 그럼 최지훈 설계자는 오늘 논의된 예외 처리 방안과 연차 계산 기준 유연화 방안을 프로세스에 반영하여 상세 프로세스 정의서와 플로우차트를 7월 26일까지 업데이트해 주십시오. 강은지 개발자는 이 확정된 근태 프로세스 로직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 및 예상 소요 시간을 재검토하여 7월 26일까지 보고 바랍니다. 제가 7월 29일까지 고객의 최종 서면 승인을 받겠습니다.

### 3. 데이터 설계 단계 회의 기록: '유연한 근태 데이터 구조' 구축

회의명: 인사시스템 데이터 모델 설계 검토 회의

일시: 2025년 8월 5일 (월) 10:00 - 12:30

장소: [4층 중회의실]

참석자: PM(이현아), PL(김민준), 설계자(최지훈), 개발자 대표(강은지)

불참자: 고객 (사전 공유 및 승인 예정)

**PM 이현아(아라):** 오늘은 지난 프로세스 설계 회의에서 논의된 '복잡한 근태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검토합니다. 특히 유연한 근태 관리를 위한 데이터 구조에 중점을 두어 논의하겠습니다. 최지훈 설계자가 준비한 ERD를 공유해주십시오.

**설계자 최지훈(하준):** 네, 화면에 ERD를 공유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확정된 근태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해 Attendance (근태 기록) 테이블과 Leave (휴가) 테이블의 구조를 상세화했습니다. Attendance 테이블에는 기록일자, 출근시각, 퇴근시각, 근무유형 (정상근무, 재택, 외근 등), 승인여부, 연장근무시간, 연장근무사유 등의 컬럼을 추가했습니다.

Leave 테이블에는 휴가유형(연차, 반차, 병가 등), 신청일, 시작일, 종료일, 사용일수, 승인상태, 잔여연차 등의 컬럼을 포함했습니다. 특히, 연차 계산의 유연성을 위해 Employee 테이블에는 입사일, 연차발생기준일을, 별도 Code 테이블에는 연차부여정책에 대한 코드 및 기준값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개발자 강은지(앨리스):** Attendance 테이블에 근무유형 컬럼을 추가한 것은 좋습니다. 다만, 연장근무시간은 연장근무신청 테이블을 따로 두고 신청시간, 승인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더 명확하고 데이터 무결성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Attendance 테이블에는 최종 확정된 근무 시간만 남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PL 김민준(준성):** 동의합니다. 그리고 Leave 테이블에서 잔여연차를 직접 저장하기보다는, 입사일과 사용일수, 그리고 연차부여정책을 통해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데이터 중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부하가 우려되면 캐싱 전략을 고려하면 됩니다.

**설계자 최지훈(하준):** (고민) 네, 강은지 개발자님과 김민준 PL님 의견 모두 타당합니다. 연장근무신청 테이블을 분리하고, 잔여연차는 계산 필드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ERD를 수정하겠습니다. 이것이 데이터 정합성과 유연성 측면에서 더 좋습니다. 연차부여정책은 Code 테이블에서 관리하고, Attendance 테이블에는 이 정책을 참조하도록 설계하겠습니다.

**PM 이현아(아라):** 좋습니다. 데이터 설계의 핵심은 정확성과 유연성, 그리고 확장성입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그 목표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최지훈 설계자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ERD와 상세 데이터 정의서를 8월 9일까지 업데이트하고, DDL(Data Definition Language) 스크립트도 함께 제공해 주십시오. 강은지 개발자는 이 설계서를 기반으로 DB 스키마 구축을 준비해 주십시오.

### 4. UI 설계 단계 회의 기록: '직관적인 근태 관리 UI' 구현

회의명: 인사시스템 UI/UX 설계 검토 회의

일시: 2025년 8월 19일 (월) 14:00 - 16:30

장소: [대회의실]

참석자: 고객(인사팀장 김철수, 실무담당자 박미영), PM(이현아), PL(김민준), 설계자(최지훈), 개발자 대표(강은지)

**PM 이현아(아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사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 경험(UX) 설계안을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지난 회의에서 데이터 구조를 확정한 복잡한 근태 관리 기능이 사용자에게 어떻게 제공될지 중요하게 논의할 것입니다. 최지훈 설계자가 준비한 와이어프레임과 프로토타입을 공유해주십시오.

**설계자 최지훈(하준):** (화면 공유하며) 네, 가장 핵심적인 '근태 신청/조회 화면'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 대시보드에서 바로 접근 가능하도록 위젯을 배치했고, 클릭 시 자신의 월별 근무 현황(출퇴근 기록, 유연근무 시간, 연장근무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디자인했습니다. 휴가 신청 시에는 남은 연차 일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며, 자주 사용하는 휴가 사유는 드롭다운 메뉴로 제공됩니다. 연장근무 신청 시에는 예상 근무 시간과 사유를 입력하게 하고, 승인 전 대기 상태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고객 박미영(다인):** (프로토타입을 직접 조작하며) 와, 훨씬 직관적이네요! 남은 연차 일수가 바로 보이니까 인사팀에 일일이 문의할 필요가 없어지겠습니다. 연장근무 신청도 프로세스대로 잘 보여주고요. 혹시 특정 일자의 근무 기록에 오류가 있을 때 직원이 직접 수정 요청할 수 있는 기능도 있나요?

**설계자 최지훈(하준):** 좋은 질문입니다. 아직 반영하진 않았지만, '근무 기록 정정 요청'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오류를 발견하면 시스템을 통해 정정 요청을 하고, 팀장 또는 인사팀 승인을 거쳐 반영되는 프로세스를 추가하겠습니다.

**고객 김철수(민상):** 인사팀 입장에서는 직원의 **'근태 현황 승인 및 관리' 화면**이 중요합니다. 각 팀원의 근무 현황을 대시보드 형태로 보고, 미승인된 연장근무나 휴가 신청 건을 빠르게 파악하여 일괄 승인 또는 반려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설계자 최지훈(하준):** 네, 관리자용 근태 승인 화면에서는 미결된 신청 건들을 목록으로 보여주고, 필터링 및 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관리자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습니다. 승인/반려 시 해당 직원에게 알림이 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PM 이현아(아라):** 훌륭합니다. 근태 관리의 UI/UX가 고객의 실제 업무와 사용자 편의성을 잘 반영하고 있네요. 그럼 최지훈 설계자는 오늘 받은 피드백(근무 기록 정정 요청 기능, 관리자용 승인 화면 상세화)을 반영하여 UI/UX 설계서와 프로토타입을 8월 23일까지 수정해 주십시오. 제가 8월 26일까지 고객의 최종 승인을 받겠습니다. 강은지 개발자는 수정된 설계서를 바탕으로 프론트엔드 개발 환경 설정과 근태 관련 공통 컴포넌트 개발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5. 개발 단계 (초기) 회의 기록: '자동화된 근태 시스템' 구현 착수

회의명: 인사시스템 개발 초기 진척 상황 및 이슈 공유 회의

일시: 2025년 9월 2일 (월) 10:00 - 11:30

장소: [대회의실]

참석자: PM(이현아), PL(김민준), 설계자(최지훈), 개발자 전원(강은지 외 3명)

**PM 이현아(아라):** 안녕하세요, 팀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개발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복잡한 '자동화된 근태 시스템' 구현의 초기 현황과 발생 가능한 기술적 이슈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김민준 PL이 전체적인 진행 상황을 먼저 보고해주시죠.

**PL 김민준(준성):** 네, PM님. 지난주까지 백엔드(Spring Boot), 프론트엔드(React), 데이터베이스(PostgreSQL) 개발 환경 설정은 모두 완료했습니다. CI/CD 파이프라인도 정상적으로 연동되어 자동 배포 환경까지 구축되었습니다. 각 팀원은 배정된 모듈의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개발자 강은지(앨리스):** 저는 프론트엔드에서 근태 관리 화면의 핵심 컴포넌트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달력 기반의 근무 기록 조회 및 휴가/연장근무 신청 폼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UI 설계에서 요구된 실시간 연차 잔여 일수 표시는 백엔드 API 연동을 통해 구현할 예정입니다.

**개발자 김지훈(효석):** 백엔드에서는 근태 기록 저장 및 조회 API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다양한 근무 유형과 연장근무 기록을 처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와 연동하여 구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연차 및 근무 시간 자동 계산 로직**에 대한 설계는 최지훈 설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자 최지훈(하준):** 맞습니다. 연차 계산 로직은 법규와 회사 정책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어제까지 법적 기준 및 회사 정책을 코드 테이블과 연동하여 관리자가 설정값을 변경할 수 있도록 상세 설계를 마무리했습니다. 개발팀에서 이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가이드와 테스트 케이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연장근무 신청 시 기존 근무 시간과의 충돌 여부를 검증하는 로직에 대한 기술 논의가 필요합니다.

**PM 이현아(아라):** 좋습니다. 개발팀이 핵심 과제인 근태 시스템 구현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혹시 현재까지 발생한 기술적인 어려움이나, 해결해야 할 블로커(Blocker)가 있을까요?

**개발자 박준혁(문필):** 연차 계산 로직이나 특정 근무 형태에 대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로직이 복잡하여,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단위 테스트와 통합 테스트가 필요해 보입니다. 혹시 테스트 데이터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PL 김민준(준성):** 좋은 지적입니다. 테스트 데이터 확보는 별도의 태스크로 관리하여 PM님과 논의 후 진행하겠습니다. 최지훈 설계자는 연차 계산 로직과 근무 형태별 유효성 검사 로직에 대한 구체적인 구현 가이드와 테스트 시나리오를 9월 6일까지 개발팀에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은지 개발자, 김지훈 개발자, 박준혁 개발자 모두 담당 모듈 개발에 착수하고 주간 개발 진척 상황을 매주 금요일에 저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PM 이현아(아라):** 알겠습니다. 개발팀에서 중요한 이슈들을 잘 파악하고 있네요. 모든 팀원은 근태 시스템의 정확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우선을 두고 개발에 임해 주십시오. 다음 주 월요일에 주간 진척 보고를 받겠습니다.